

호명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한주

가까이서 뵈는 큰스님

“이 몸 안에 우주의 진리 있어요”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설잡 선사 '禪燈'

설잡 선사는 세종 17년(1435)에 성균관 뒤편에 있는 사저에서 출생하였다. 관향은 강릉 김 씨, 속명은 시습(時習), 자는 열경(悅卿), 호는 청한자(淸寒子), 매월당(梅月堂), 법명은 설잡(雪寂), 법호는 동봉(東峰), 벽산청은(碧山淸隱), 법자는 혜세옹(懷世翁)이다.

선사는 세상에 알려져 있듯이 3세 때 보리를 맷돌에 가는 것을 보고 '비는 아니 오는데 천둥소리는 어디서 나는가'는 시를 읊었다.

선사는 세종의 총애를 받을 정도로 신동소리를 들었지만 유년시절부터 삶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13세에 이계전, 김반, 윤상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타고난 천재성은 일취월장하지 못하여 시련의 길을 걷고 말았다. 15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소년기를 보냈으며, 이러한 생활 속에서는 학업을 이루지 못할 것을 깨닫고 삼각산 중흥

機鋒似林陰(기봉사임림)
濟爽契希夷(제오계희이)
始覺浮生幻(시각부생환)
多慚宿業癡(다참숙업치)
禪心與禪大(선심여선대)
相照幾人知(상조거인지)

한점의 외로운 등불 빛나는 것은, 세상에 올라 입을 다문 그 때이네.

심기(心氣)는 번뇌망상과 비슷한데, 오묘한 이치는 희이(希夷: 뜬외와 어투러졌으나. 부생(浮生)이 환상임을 비로소 깨치니, 전생업이 어리석어 부끄럽다.

선심(禪心)은 선행(禪行)보다 더 큰데, 그 비침을 누가 알리요.

선월(禪月)

滿庭秋月白森森(만정추월백삼삼)
人靜孤燈夜已深(인정고등야이심)
風淡霜清不成夢(풍담상청불성몽)

禪心은 禪行보다 더 큰데

그 비침을 누가 알리요

사에 들어가 학업을 계속하였다.

21세 되는 해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물아내고 대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견광인자 세아속생(犬狂人者世我俗生: 미친개 같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찌 살 수가 있겠는가)"라고서 풍통 속으로 들어가 3일간 있다가 나와 삭발하였다. 그 후 선사는 산천을 드루 섭렵하여 다니다가 문경새재에 있는 깊은 곳에 은거하여 용맹정진하였다.

선사께서 용맹정진 하였던 곳은 선사의 부도가 있는 해곡사로 추정된다. 이 사찰은 신라 문성왕 8년(846)에 보조 국사가 창건한 법흥사다. 또한 고려 공민왕이 이곳에 행차하여 산의 이름드 설잡산(雪寂山)에서 주출산(住出山)으로 고을 것을 명하였다. 이곳에 주석하면서 선사의 법명이 설잡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선사는 선실에 켜져 있는 등불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

선등(禪燈)

一點孤燈炯(일점고등형)
燈床杜口時(등상두구시)

紙窓簾影動禪心(지창렴영동선심)

뜰에 가득한 가을 달 흰빛이 창창한데, 사람 없어 고요하고 외로운 등(燈) 밤은 깊었다.

바람 땀땀하고 서리 맑아서 꿈 못 이루는데, 종이·창·발 그림자에 선심(禪心)이 무엇인지 깨달았구나.

선사의 깨침은 태산같은 설산이 녹아내린 것과 같다.

선사는 승려로서 때로는 걸인으로서 시인으로서 또한 천민들과 각설이패와 어울리면서 선(禪)의 세계를 자연과 더불어 마음껏 발휘하여 소외된 중생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었다.

선사는 오늘날까지 중생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준 시대를 초월한 선사로서 무애자(無碍者)이다. 또한 선사는 금오산 용장사(金鰲山 苴長寺)에 주석하실 때 차나무를 심고 가꾸었으며, 일본 스님인 '도시모지우카이(俊茂)'에게 우리나라의 다담선(茶湛禪)과 다도를 가르쳤다. 선사는 성종 24년(1493)에 열반하였다.

선과 이론. 왠지 어색한 느낌부터 앞선다. 선을 공부함에 있어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불이만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가운데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불립문자란 용어가 선과 이론을 더 어색하게 한다. 그렇다면 선과 이론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

이런 궁궁증을 풀기 위해 8일 통도사 시탑전(侍塔殿)에 주석하게 계시는 호명 스님을 뵈러 떠났다. 통도사에 도착하자 황궁한 솔랑기가 먼저 코끝에 와 닿는다. 세속의 온갖 더러움을 씻어 내는 듯 가슴 속까지 시원하다. 솔랑기를 마음껏 들이 마시고 나니 통도사를 찾는 신도나 스님들의 얼굴이 꽃빛깔처럼 환해 보였다. 토요일이어서인지 통도사에는 제법 사람들의 그림자가 잦았다. 박물관 왼편으로 난 구름다리를 건너 시탑전 앞에 이르자 산새들이 반가운지 지저귀어 높아가고, 다람쥐도 길 가까이 나와 앞발을 들어 합장한다.

오솔길 사이로 보이는 시탑전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고풍스럽다. 파란 잔디가 깔려진 마당에는 빨간 고추가 가을 햇빛을 받아 눈이 시릴 정도로 빛나고, 우물가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다. 영취산 계곡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에 연신 풍경소리가 맑게 울린다.

한국불교 뿌리 튼실하게

시탑전에서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방식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검정색 고무신만 쫓으면 그곳이 호명 스님이 계신 곳이란 말을 미리 들었기 때문이다.

절을 하는 기자에게 한 번만 하라고 스님이 인자하게 말씀하신다. 자리에 앉자마자 스님은 한국불교 걱정부터 하셨다. 날개만 있을 뿐 뿌리가 튼실하지 못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다는 것이다.

"한국 불교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왜그러나 하면 수박겉핥기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이야. 스님들도, 교수들도 모두 교리만 이려고 저러고 하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핵심은 못 잡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흰하게 보여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천편만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허식과 악행만 늘어가는 한국불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스님은, 어제(7일) 수행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들은 '선에 대한 이론이 늘면 공부 안 된다'는 수행론을 가지고 있었다

고 한다. 이에 대해 스님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론의 체계를 분명히 세워야 수행도 잘 할 수 있다는 것.

"수행을 하려면 선(禪)의 레일 위에 올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레일 위에 올라야 하고, 부산에 가려면 부산가는 레일 위에 올라야 하는 것처럼 선에도 레일과 같은 선로(禪路)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레일 위에 오를 수 있는 기초지식, 즉 이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론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을 때에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분명히 알면 누가 뭐라 해도 확고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행에 앞서 선의 레일 위에 올라가는 방식(이론)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지금의 한국불교 현실에서 선의 레일 위에 오르는 방법론이 하루속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밤낮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님은 그 방법이 <반야심경> 속에 다 들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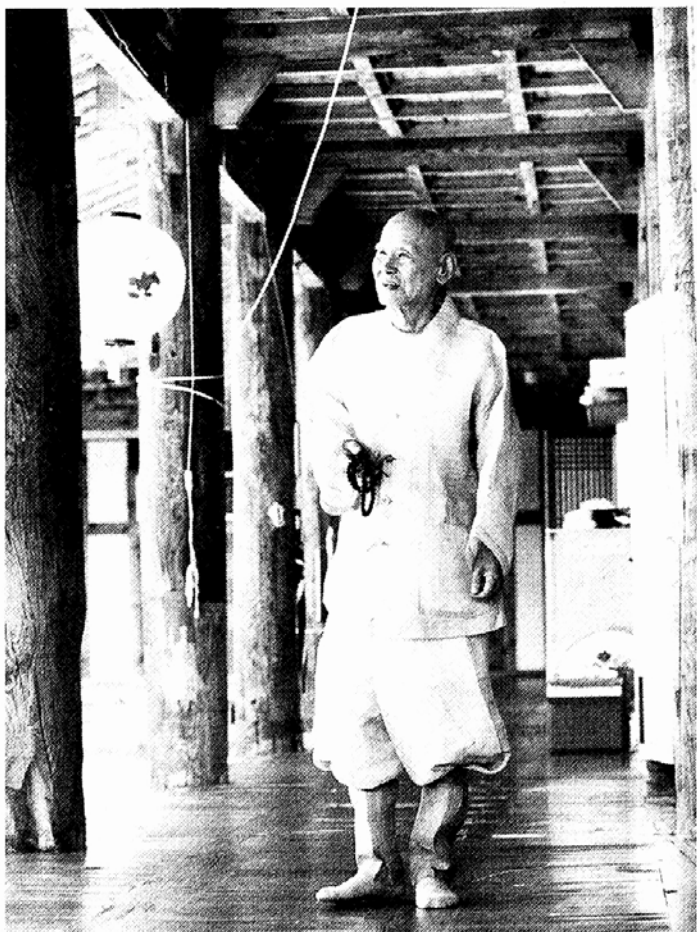
<반야심경>에 '오온개공(五蘊皆空)'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이 근본공인데 이 이치를 알려면 우선 내가 죽어야 돼요. 정신 상태가 죽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리고, 걸리지 않아야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쁘다고 우르르 달려

이론-수행-실천 맞물려 돌아야 자신을 알고 일가견

가고, 미운 것을 보면 밉다고 고개를 돌리는, 이것이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색도 마음도 그리고 모양도 없는 근본 자리로 들어가야 해요. 오온이 개공해야 일체고액이 쉬게 되거든. 그러니 우선 고액부터 없애야 해. 그랬을 때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수행의 첫 조건이에요."

스님은 분별심이 생기는 것은 아상 때문이라고 하신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 마음대로 쓸 줄 알아야 하는데 아상 때문에 분별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다시 불교활동을 하는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한국불교의 현실을 이야기 하신다. 불교를 위해 열심히 하는데 제



통도사 시탑전에 주석하고 계신 호명 스님은 불자들에게 선의 기초이론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다.

대로 불교에 대해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문 원하는곳 어디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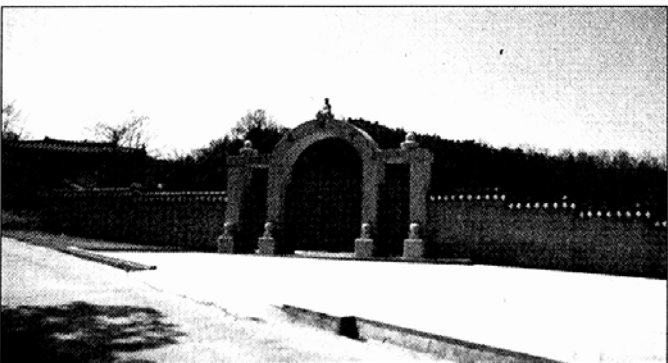
"자기가 눈이 밝지 않으니 눈 밝은 사람을 모르거든. 그러니 불교활동이 쉽지 않지. 문제는 스님들에게 있어요. 불법을 가르치는데 있어,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백고좌법회 같은 경우 이 스님이 와서 이런 얘기 하고, 저 스님이 와서 저런 얘기 하니 초심자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잡아서 수행을 해야 할지 헷갈리지. 나는 불교에 밝지 못한 사람들을 '장남'이라 하지 않고 '명태' 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명태 눈'을 밝게 띄워주는 것이 승가의

역할이라는 스님은, 하루 일과 대부분을 강의와 법문으로 보낸다. 거리의 멀고 가까움도 상관하지 않는다. 스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스님은 이곳 통도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방 선원과 토굴에서 오랫동안 수행한, 구참종의 구참이다. 천성산 조계암에서는 22년간이나 직접 밥 짓고 농사지으며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철저히 지키며 수행했을 정도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나 혼자만 살아서 될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니 나 혼자만 알고 있다가 아까웠어요. 내가 죽으면 눈 못 감고 죽을 것 같아서 하루는 '발만 메고 살아선 안 되겠다', '이렇게 속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에서 내려왔습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

갈월사 영탑(靈塔)

윤달에 조상에게 효도를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만들어 졌으며 사방이 우거진 울창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윤달에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들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조성된 영탑 ▼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은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후손 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772-190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 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www.galwolsa.bz.co.kr>